

성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교회소식

◆ 모임

1. 사라전도회 월례회 / 5일(주) 3부 예배 후 802호
2. 교구위원회 월례회 / 5일(주) 오전 11시 202호
3. 정기당회 / 8일(수) 수요일 2부 예배 후 402호
4. 마리아전도회 월례회 / 11일(토) 오후 1시 30분 802호

◆ 알림

1. 101호 / 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2. 102호 / 소망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 10분-11시
3. 403호 /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501호 / 중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5. 506호 / 비전2030 도고팀 : 주일 오후 1시-3시
6. 601호 / 초등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 10분 / 청년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 30분-5시
7. 602호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 10분 · 오후 12시 10분-오후 1시
8. 603호 / 사랑부 : 주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9. 606호 / 신혼가정부 : 주일 오후 12시 30분-2시
10. 609호 / 세례교육부 : 주일 오후 12시 10분
11. 701호 / 유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 10분
12. 702호 /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 10분
13. 706호 / 유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 10분
14. 세례식 신청 - 금년도 첫 번째 세례식인 2월 세례(입교, 유아세례)식이 2월 26일(주일) 찬양예배 시 있습니다.

- *입교와 유아세례 신청: 2월 11일(토)
- *입교와 유아세례 교육: 2월 19(주일) 낮 12시 20분 602호
- *입교와 유아세례 문답: 2월 19(주일) 오후 1시 30분 609호
- *신청접수처 : 교육부서 및 교회 사무국
- *기타 궁금한 사항은(세례교육부 010-7743-3223)로 문의바람

15. 찬양예배 설교 : Michael Werner 목사

독일 비르템베르크 주 교회 루드비히스부르크(Ludwigsburg)노회 노회장
독일 비르템베르크 주 교회 루드비히스부르크 노회 대표단 방문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비전 (vision)

-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부 목사 장석남 조원영 김익환 현종필

전도사 박미라 최중국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손주찬 교육전도사 김예지 배인혜 김가은 합동목사 전재홍 양정호
선교사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혜경,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범연·김희정, 우상식·김정욱(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경(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외국인 노동자)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스브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토, 수레시, 수바스, 알로롱, 비시누보도, 보디소프, 린롬,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영모, 이금순, 김영일(군선교)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반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위임목사
Senior Pastor

손달익
Rev. Son, Dal-ig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Tel.558-1106 / Fax.558-2107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http://seoulchurch.or.kr/

“ 다시 희망을 향하여 가야합니다 ”

■ 고린도후서 4:7-18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은 그의 중단될 수 없는 희망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세상을 넘어서는 영원한 희망까지 제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희망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1. 바른 가치관

가치관이란 사물이나 사건 등에 대한 가장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사람은 가치관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고 움직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바울의 가치관은 갈 사람보다 속사람이 더 중요하고 지금의 환난보다 장차 받을 영광이 더 중요하며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일생을 바쳐가면서 복음전하는 일에 전력을 수 있었습니니다. 롬 9:1-3, 롬 10:1에 따르면 그는 민족주의자였고 하자였습니다. 그러나 민족주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었습니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구원을 얻어야 한다는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생을 이방 지역을 순회하면서 자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불무불 속에서 흔적 없이 사라질 위기가 다가와도 죽고 사는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그에게만 절할 수 있다는 더 중요한 신앙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가치관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혹독한 일을 당하고 모진 시련 앞에 육신이 무너져 내려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니다. 복음과 신앙에 바탕한 올바른 가치관과 정신을 지닌 성도들이 되시면 가려 하는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희망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2. 능력의 원천

8,9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라고 했습니다. 어떤 방해와 저항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지켜나간다는 고백입니다. 그를 이렇게 초인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보배를 칠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자주 인간이 칠그릇에 비유합니다. 잘 깨어지는 연약한 그릇 같은 존재가 인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칠그릇 같은 인간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칠그릇에 보배를 담는 것 같이 연약하고 최 많은 인간이 주님을 영접하고 모실 때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요 20:22에 의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성령을 받으라'하셨습니다. 성령의 생명력이 있어야 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능력 있는 제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배를 품은 칠그릇입니다.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보배이신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담대해야 합니다. 그때 희망으로 가는 삶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3. 하나님의 일하심

본문의 희망의 역사를 만드는 사람은 희생을 실천하는 사람임을 제시합니다. 10,11절에서, '예수의 죽음을 몸이 짊어짐은 또는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을 넘겨짐'이라는 표현은 주님을 위하여 날마다 죽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육신을 죽음에 넘겨주듯 생사를 초월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즉, 마땅한 권리의 포기를 의미합니다. 고전 9:4-6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믿음의 재매 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더 많은 짐을 져야 하지만 주님을 위해 모든 권리를 내려놓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죽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간디는 7가지 사회악을 이기하려고 그 가운데 절정이 희생 없는 종교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경계 해야 할 일 가운데 희생 없는 권리 주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기 포기와 희생을 통해 더 큰 것을 성취하는 삶을 가르칩니다. 희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참 신앙의 즐거움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12절에 '그러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나는 죽음에 넘겨지는 것 같은 십자가의 삶을 살고 희생을 실천하는 제자의 길을 걷지만 이런 희생 때문에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사람이 살게 된 것 같이 지금도 주님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 지고 희생하는 사람들에 의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생명 없는 구원의 축복이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희생의 신앙이 미래를 희망의 세계가 되게 할 것입니다.

이번 주 손달익 목사 설교 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시 간	인 도	기 도	시 간	인 도	기 도
I 오전 9시	조원영 목사	이계홍 장로	III 오후 2시	현종필 목사	이계홍 장로
II 오전 11시	장석남 목사	오치열 장로			

입례송	오르가니스트	예배로 부름	시 43:3-4...	인 도 자	* 신앙고백	다 함 께
기 원	인 도 자	* 경배와 찬양	찬 양 팀	기 도	말 은 이	
* 찬 송	14(1, 4절)...	환영과 축복	찬 양 팀	성경 봉독	고후 4:7-18...	말 은 이
* 신앙고백	다 함 께	교회 소식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다시 희망을 향하여 가입니다”...
* 성시 교육	35(시 84)...	성경 봉독	고후 4:7-18...	설 교	다 함 께	
* 송 영	4	찬 양	찬 양 대	* 봉헌기도	다 함 께	
기 도	말 은 이	결단의 기도	다 함 께	봉 헌	다 함 께	
찬 송	93...	봉 헌	다 함 께	* 봉헌기도	설 교 자	
성경 봉독	고후 4:7-18...	* 파 송	찬 양 팀	* 파 송	찬 양 팀	
성도의 교제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축 도	설 교 자	
봉헌	다 함 께	* 후 주	찬 양 팀	* 후 주	찬 양 팀	
* 봉헌송	634...					
* 봉헌기도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다 함 께					
설 교 ...“다시 희망을 향하여 가입니다”...	손달익 목사					
* 찬 송	321...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봉 헌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전지희	김진이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최유현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헨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이주희	윤주일	3부 예배 신디시스트	이요한	
찬양예배	베들레헴	박래경	안효주	박수강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후 4:15)		
수요 I 부	호산나	구민영		김윤지	금주의 성구			
수요 II 부	시 온	최유현		조현경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마 22:37-40)

찬 양 예 배

수 요 예 배

시 간	인 도	기 도	시 간	인 도	기 도
오후 4시30분	손달익 목사	옥종호 집사	I 오전 11시	전재홍 목사	고선옥 권사
			II 오후 7시	전재홍 목사	권진순 권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습 3:17	인 도 자
찬 송	71	다 함 께
기 도	말 은 이	
찬 송	21	다 함 께
성 경	창 16:13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보시는 하나님을	Michael	

보여지게 하기” ... Werner 목사

* 찬 송	312	다 함 께
* 축 도	손달익 목사	
* 주기도송	다 함 께	

성 경	왕상 16:21-34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흑암의 시기”	손달익 목사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 · 박수강 · 김복희2 · 신아령
설 교	손달익, 장석남 목사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찬 양	찬 양 팀
설 교	전재홍 목사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새벽기도
2,011명	731명	2,742명	632명	2,008명